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와 정세전망

전산필

471

1969. 5

목 차

1. 서 설 1

2. 9전대회 개최목적 2

3. 9전대회 일정 3

4. 9전대회 분석 3

가. 신규약의 특징 4

나. 정치보고(임표의 발표)의 특징 6

다. 중공의 새로운 권력구조 8

5. 9전대회 이후 중공의 정세전망 9

가. 단기전망 9

나. 장기전망 11

도 표 15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와 정세 전망

1. 서 설

공산당의 당대회란 당규약상으로는 당의 최고 결정기관이라고 규정 되었으나 실제상으로는 지도층의 보고연설과 사전 결정에 대한 찬성도구에 불과하다.

1921 년 7월 상해에서 불과 몇십명의 당원들로써 시작된 중국공산당 전국대회는 오늘날까지 9차의 대회를 가졌다.

9차까지에 경과를 대략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중국공산당 초창기로부터 1949년 국민당 정부를 대만으로 몰아낼 때까지고 2단계는 중공정권 수립 이후라 하겠다.

1949년까지는 일곱번의 전국대회가 있었고 그 후에는 8차 (1956), 9차 전국대회 밖에 없었다.

제8차 부터 9차 전국대회(9전대회)를 열기까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유는,

첫째, 1956년 부터 시작된 쏘련의 스타린 격하운동에서 부터 중·쏘 관계가 미묘해져 대외적으로 위협을 느꼈으며,

둘째, 경제정책의 실패로 국민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민심이 동요하였고,

세째, 소위 실권파(유소기)의 등장으로 해서 중국공산당 자체의

알력이 있었고,

네째, 1966년 부터 시작한 문화혁명이란 이름의 정치숙청(실권파를 제거키 위한)이 오래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사전의 확정일자의 예고없이 지난 4월1일 부터 24일까지 제9차 전국대회(세칭"9전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하였는바, 13년동안 당무와 인사는 정식 당 기구의 절차를 밟지 않고 모택동과 극소수의 그의 추종자에 의하여 실행되어 왔다.

본 9전대회는 중공내의 대문화 혁명의 종결과 대외적인 중·쏘 분쟁의 격화시기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정세분석서는,

첫째로, 본 대회개최의 목적의 분석,

둘째로, 새로운 당 규약 및 정치보고를 통한 중공의 지도체제에 대한 성격규정과 이후의 정치로선을 규명하며,

세째로, 중공내외의 중장기 정세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 9전대회 개최의 목적

본 대회는 사전의 확정일자의 예고없이 돌연 소집된 것인바, 이와 같이 전례에 없는 대회의 개최는 아래와 같은 중공 대내

외의 여건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첫째, 1966년 부터 본격화 되었던 "무산계급 문화 대혁명"의 종결과 이후의 혁명수행에 관한 대책의 강구(당 지도체제와 혁명주체인 홍위병과의 관계)

둘째, 중공 당이념 및 지도체제의 확립의 필요성(모택동 사상노선의 절대화와 모택동의 후계자 선정문제 및 유소기·등소평 등의 당 실권파 숙청의 합법화)

세째, 중·쏘 분쟁의 격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내적인 단결의 필요성(중·쏘 국경분쟁에 대한 대응책 및 6월의 "세계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 대한 대응책)

마지막으로 정치제일주의 및 문화혁명과정에 의하여 정체된 경제건설의 필요성 등이라 할 것이다.

3. 9전대회 일정

9전대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4월 1일 대회개막

임표의 정치보고 (27일 공표)

4월 14일 당 규약의 채택(28일 발표)

4월 24일 중앙위 선출

중앙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선출

4. 9전대회의 분석

금번 9전대회의 결산을 새로 채택된 당의 신규약 및 정치보고를 통하여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규약의 특징

9전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당규약은 8전대회의 구규약과 비교하여 당의 성격 규정상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첫째, 모택동 사상의 제시

중국공산당은 자기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맑스주의, 레닌주의에 기초를둔 모택동사상을 표방하고, 모택동 사상은 〃제국주의가 전면적 붕괴로 향하고 사회주의가 전세계적 승리로 향하는 시대의 맑스·레닌주의〃라고 선언 하였다. 따라서 이는 현재까지 중공내에서 공공연히 실행되어온 모택동 개인 숭배사상을 당 규약으로서 공식화 시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모택동의 후계자 지명

임표에 대하여 그는 일관해서 모택동 사상의 위대한 홍기를 높이들고 가장 큰 충성심을 보이며 가장 확고하게 모택동의 무산계급 혁명로선을 집행하고 수호해 왔다고 찬양하고 임표는 모택동의 〃친밀한 전우이며 후계자〃라고하여 후계자 성명을 명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 규약에 의한 후계자 지명의 공식화는 대내적으로는 모주석의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을 예방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공의 현 지배체제가 계속중공을 통치하고자 하는 결의를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세째, 미국제국주의 및 쏘련 수정주의의 타도

중국공산당은 무산계급 국제주의를 견지하며 단호하게 전 세계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정당 및 단체와 단결하고 전 세계의 무산계급, 피압박인민 및 민족과 단결하여 미국을 두목으로 한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쏘련"수정주의 반역집단"을 중심으로 한 현대 수정주의를 분쇄한다. 하여 "미국제국주의"와 "쏘련수정주의"를 동렬에 놓고 그 타도를 외치고 있는바 이는 "쏘련과의 우의 발전 및 단결"을 주장하던 구규약상의 대외정책에 대한 일대 방향전환임은 물론 근래 표면화된 중·쏘분쟁의 공식적인 대응책의 단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다.

네째, 당원의 대중심사제도 채택

입당절차에 있어 "대중심사제도"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일응 군중노선의 철저화와 대중적 정당에의 복귀를 강조한것 같지만, 한편 당 조직은 당내 민주주의로 다스리지 않고, 당외 대중 이름을 빌리는 권력으로 다스리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다섯째, 당원의 성분의 순수화

당원이 당의 규율에 위반하였을 적에는 필요에 따라 당외의 대중에게 공포하며, 확정된 증거가 있는 반역자, 끝내 개준하지 않는 실권파, 타락 이질분자 및 계급이질분자는 당에서 일소하며 재 입당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권파의 영구매장을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홍위병의 통제

홍위병 기타 혁명적 대중조직은 모두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실권파와의 대결에 이용했던 비당조직인 홍위병들을 다시 당의지도하에 통제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당중앙위원회 권능의 강화

당의 최고기관은 전국대표 대회와 그에 의하여 선출되는 중앙위원회이다 라고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치와 권한을 높혔다.

여덟째, 현 지도체제의 장기 집권화 기도

구 규약상 연1회 개최키로 되어 있는 당의 전국대표대회를 5년에 1회 개최할 수 있게 하여 현 독재체제의 장기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예로보아 5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구 규약상 매년 1회 소집하기로 된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소집의무를 삭제하여 현 지도층에 의한 자의적인 개최의 길을 트여 놓은 것은 물론 반대 세력의 등장을 계속 저지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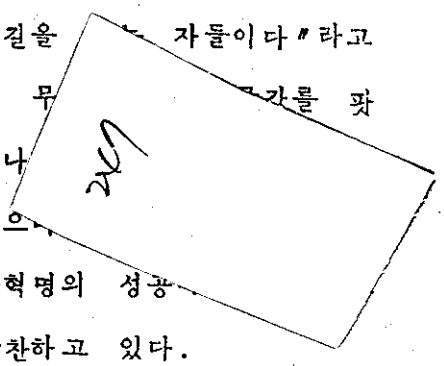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금번의 새로운 당 규약은 현 모택동 지도체제를 일층 강화하였으며 모택동의 후계자를 명시하여 당 주도권 쟁탈전을 사전 예방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반미" "반쏘"의 기치를 높혀 대쏘투쟁에 대한 당의 단결과 투쟁목표를 명백히 하였다.

나. 정치보고 (임표 발표)의 특징

9전대회 개막과 동시에 임표에 의하여 당 대회에 보고된 "정치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산계급 문화혁명의 찬양

"현 쏘련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길을 [illegible] 자들이다"라고 비난하고 후르시쵸프나 부레즈네프는 무[illegible]가를 파시즘, 브르좌 독재국가로 변경시켰으나 [illegible] 재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켰다고 하였으[illegible] 산계급 독재의 성공은 그간의 문화혁명의 성공[illegible] 이루어 졌다고 하여 문화혁명을 극찬하고 있다.



둘째, 유소기 숙청의 합리화

"유소기는 노동자 계급의 간적(奸敵)이다. 그는 제국주의, 수정주의, 국민당의 앞잡이고 중국을 제국주의, 수정주의의 식민지로 변경시킬려고 하였다.

유소기 집단은 대중을 도발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반혁명집단을 조직해서 무산계급으로 부터 탈권하려고 하였다.

유소기를 숙청한 것은 문화혁명의 대승리이다"라 하여 실권파의 숙청을 정당화 하였다.

세째, 제국주의에 대한 통일전선의 구축

임표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투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은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 규정하여 제2전선에 돌려놓고 쏘련의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경계태세를 역설하였는바 그는 쏘련을 가리켜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이 "대단히 횡폭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미·쏘의 공존정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이후 쏘련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는 쏘련 국민을 탄압하며, 자본주의의 전면적 부활을 기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중국침략을 음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미국 및 쏘련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월남, 라오스, 태국, 버마,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인도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통일전선 구축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임표의 정치보고는 현 당지도체제와 대중과의 결합을 역설하고 대외관계에 있어 반미, 반쏘 투쟁의 계속과 약소국가의 무산계급 인민의 혁명운동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북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다.

다. 중공의 새로운 권력구조

9전대회 이후 모택동을 정상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권력구조는,

전국대표 대회 (Congress)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Plenum)

중앙정치국 (Politburo)

중앙정치국 상임위 (Presidium)

의 피라밑을 형성하고 있으며 권력의 정점은 5명의 상임위원 (모택동, 임표, 주은래, 진백달, 및 강생)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임위가 겸하고 있다.

현재 모택동과 임표는 중앙정치국 및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주석 및 부주석의 자리를 겸하여 사실상의 당의 모든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치국 상임위원회는 지난 8전 대회시의 모택동, 유소기, 주은래, 임표, 주덕, 진운, 유소평 등의 7명에서 금번 9전대회에서는 유소기, 주덕, 진운, 유소평, 등이 제거되고 진백달, 강생이 추가되어 모택동, 임표, 주은래, 진백달, 강생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중앙위원회 위원 및 전국대표의 수는 격증하였는바 이것은 문화혁명 과정에서 두드러진 모·임 계의 추종자들을 신인가운데서 대거 포섭한 결과이다.

(참고 : p 15)

5. 9전대회 이후 중공의 정세전망

가. 단기전망

(1) 모택동, 임표의 개인 숭배체제의 잠정적 확립

유소기, 등소평 등 중공당내의 실권파 숙청을 합법화하며 임표의 후계자 지위 공고화와 모택동사상 노선의 절대화로서 모·임 지도체제는 당분간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 할 것이다.

(2) 공산권 분열의 격화

본 대회의 돌연한 개최는 시기적으로 보아 중공에게 적절한 개최시기 였다고 사료되나 본 대회로 인하여 공산권 분열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① 중공내의 반모파는 본 대회를 "모·임파의 폐쇄적 집회"로보며 이로 인하여 반모운동이 잠재적으로 조직화 되고 당내에서 소외집단이 증대 될 것이다.

② 쏘련은 금번 전국대회가 보인 쏘련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적대적 태도로 인하여 가능한한 현 중공당의 지도체제의 붕괴를 획책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쏘련에 망명중인 친쏘파인 「왕명」에 의한 반모·친쏘적인 중국공산당의 재건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③ 일본 공산당은 본 대회를 모추종자의 집회이며 대표선정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바 유소기등 진보적 공산주의자들의 제거로 인한 현 모택동 독재체제에 대하여 비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취할 것이며 오히려 그 태도는 점차 경화될 것이 전망된다.

④ 월맹은 본 대회에 축하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원조를 얻기위한 제스츄어에 불과하고 이념적인 동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⑤ 한편 북괴는 대 중공관계에 있어 자주로선을 계속 견지할 것인바 중·쏘 분쟁의 격화기에 있는 현재 계속 침묵을 지키며 관계개선의 시기만을 엿보고 있을 것이다.

(3) 중공 통치기구의 군사화 및 관료화

임표의 후계자 지명은 당 지도자에 대한 군부의 동조를 가능케 하며 현재 당의 중앙조직은 독재체제의 장기화 및 관료화를 가능케 할 것이다.

(4) 중공의 대내의 정책의 방향전환

중공은 계속된 문화대혁명의 성공적 종료를 서두르고 있는 한편 그 여력으로서 국력증강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방향 전환을 획책할 것이 전망된다. 즉

① 문혁과정에서 주창된 「정치우선」으로 부터 경제개발 및 생산증대라는 새로운 약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② 핵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인바 이는 중·쏘 분쟁의 격화로 인한 전면전쟁의 발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그의 국제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추진될 것이다.

③ 또한 금번 이룩된 대내적인 지도체제의 확립을 기초로 하여 현재까지의 외교부재 및 고립화 경향을 재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기도할 것인바,
단기적으로 볼때 미·쏘와의 화해는 속히 이루어지지않을 것이나 중공에 대하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이들의 접근에 대하여 중공은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나. 장기전망

(1) 모택동이 생존하고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까지의 중공은 현 모·임 지도체제가 효과적인 집권을 계속할 것이나 임표의 권위확립 이전에 신체쇠약으로 인한 모의 은퇴나 모의 사망은 현 중공지도체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모택동은 중공 건국의 신화적 존재로서 그의 절대적 권위에 의하여 다스려진 중공을 임표가 다스리기에는 임표의 권위확립이 요원하다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또한 현 지도층의 중추부가 연로하여 장기집권의 계속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둘째 이유이다. 이러한 모택동의 퇴거후 혼란한 과도기에 주은래가 그 조정적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비교적 온건하고 정치·행정경력이 주은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풍토는 〃강권, 전제정치〃를 오직 과도기적으로만 받아들여 졌으며 문화혁명운동도 모택동만 없었다면 유소기 등의 실권파가 승리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과도기 이후에는 전통적인 합리적이며 이념적인 정권의 계승이 전망된다.

(2) 미국의 대중공정책의 재고와 중·미의 화해가능성

장기적으로 볼때 중공의 대미관계 개선 가능성은 미국 및 서방국가의 대 중공정책의 방향전환 및 공산권내에 있어 분열현상의 진로에따라 (중·쏘 분쟁의 격화)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큐바 사태를 기점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중·쏘 관계는 공산주의의 진로에 대한 입씨름으로 부터 국경 무력충돌에까지 진전을 보게 되었다. 중공의 국력이 날로 증대해 가며 그의 세력이 중동 및 아프리카 제국에 침투하여 가자 쏘련은 대 중공세력 팽창에 대한 견제세력의 구축을 구상하게 되었

으며 구체적으로 쏘련은 중공주변국가에 대하여 2.3년전부터 부단한 접촉을 계속하여 왔으며 금년 6월에는 쏘련지도하에 아시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중·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공은 지난 2월 닉슨정부에 대하여 55년이래 소극적인 접촉을 계속하여 오던 「 왈쏘 」 대사급 회담을 재개 할 것을 미국에 제의한 바 있으며 또한 미국의 닉슨 정부도 대 중공 봉쇄정책 (Containment Policy)에 대한 재고를 시사하게 되었으니 지난 5월 닉슨은 그의 안보특별보좌관 「 키신저 」에게 대 중공 화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바 있다고 알려졌다.

미·쏘의 이와 같은 새로운 대 중공정책의 재 검토가 표면화 되고 중공의 그동안 내내적인 대문화혁명의 종결을 계기로하여 중공은 그들의 새로운 국제무대의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공의 적극적 대외정책이 미국과의 화해의 방향으로 모색된다면 제1차적인 논점은 말할나위 없이 중국자체의 문제-대만정부의 지위, 중공의 국가승인 및 유엔가입 문제등-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공과 미국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인접관계 국가에게 그대로 받아진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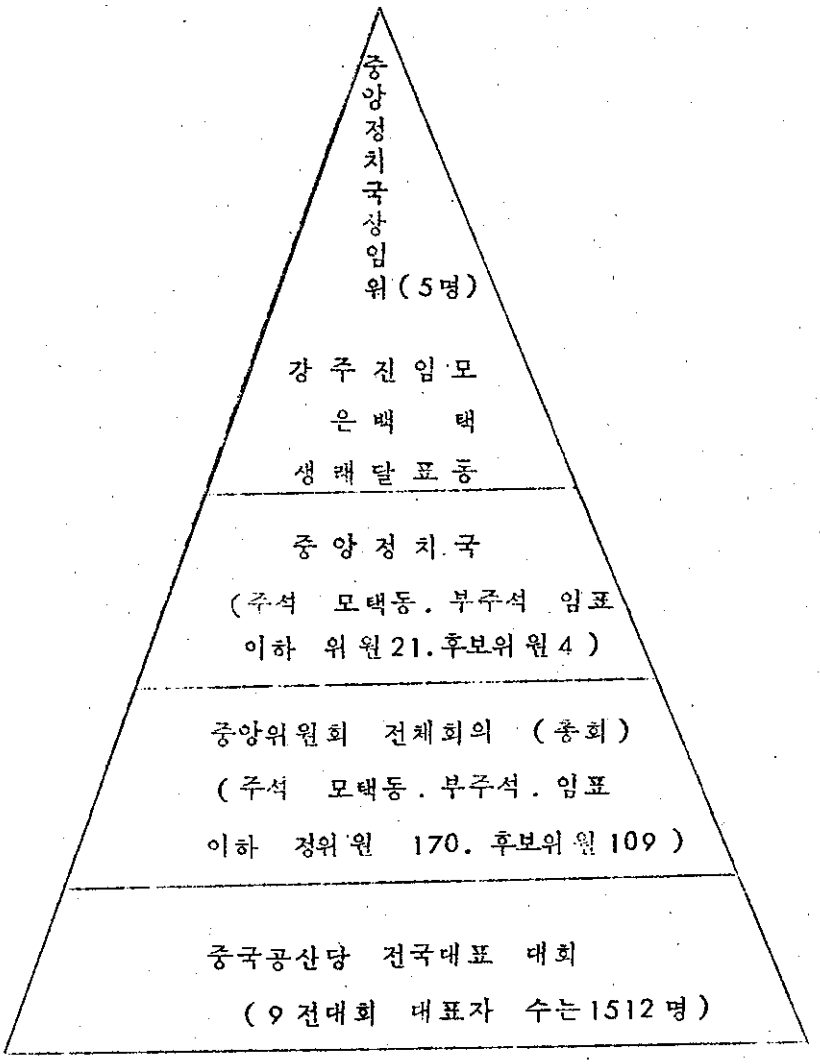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중 화해의 여건이 이루어질때 제

기되는 문제점은 소련의 집단안보체제의 결정과 미국의 아세아집단 안보체제와 이를 타파하려는 중공의 자위책의 3파전이 이루어 질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세력형성의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동을 예의 주시하고 새로운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 표>

중공의 권력 구조


중앙정치국상임위(5명)
강주진임모
은백 택
생래달표동
중앙정치국
(주석 모택동. 부주석 임표
이하 위원21. 후보위원4)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총회)
(주석 모택동. 부주석. 임표
이하 정위원 170. 후보위원 109)
중국공산당 전국대표 대회
(9전대회 대표자 수는 1512명)

첫째, 무산계급 문화혁명의 찬양

"현 쏘련지도자들은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라고 비난하고 후르시쵸프나 부레즈네프는 무산계급 독재국가를 팟시즘, 브르좌 독재국가로 변경시켰으나 모택동은 무산계급 독재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켰다고 하였으며 모택동의 이러한 무산계급 독재의 성공은 그간의 문화혁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여 문화혁명을 극찬하고 있다.

둘째, 유소기 숙청의 합리화

"유소기는 노동자 계급의 간적(奸敵)이다. 그는 제국주의, 수정주의, 국민당의 앞잡이고 중국을 제국주의, 수정주의의 식민지로 변경시킬려고 하였다.

유소기 집단은 대중을 도발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반혁명집단을 조직해서 무산계급으로 부터 탈권하려고 하였다.

유소기를 숙청한 것은 문화혁명의 대승리이다"라 하여 실권파의 숙청을 정당화 하였다.

세째, 제국주의에 대한 통일전선의 구축

임표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투쟁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은 종이호랑이(Paper Tiger)라 규정하여 제2전선에 돌려놓고 쏘련의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경계태세를 역설하였는바 그는 쏘련을 가리켜 히틀러의 팟시즘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이 "대단히 횡폭한 힘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미·쏘의 공존정책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보면,

"브레즈네프가 집권한 이후 쏘련지도자들은 국내적으로는 쏘련 국민을 탄압하며, 자본주의의 전면적 부활을 기도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제국주의와 결탁하여 중국침략을 음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공은 미국 및 쏘련 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월남, 라오스, 태국, 버마,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인도등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들의 통일전선 구축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임표의 정치보고는 현 당지도체제와 대중과의 결합을 역설하고 대외관계에 있어 반미, 반쏘 투쟁의 계속과 약소국가의 무산계급 인민의 혁명운동에 대한 지원을 공언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북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이다.

다. 중공의 새로운 권력구조

9전대회 이후 모택동을 정상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권력구조는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 권력구조는,

전국대표 대회 (Congress)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Plenum)

중앙정치국 (Politburo)

중앙정치국 상임위 (Presidium)

의 피라밑을 형성하고 있으며 권력의 정점은 5명의 상임위원 (모택동, 임표, 주은래, 진백달, 및 강생)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